

개념적 은유와 문화적 맥락: 영어와 한국어의 개념적 사랑 은유를 중심으로*

김 태 현
(영남대학교)

Kim, Tae-heon. 2008. **Conceptual Metaphors and Cultural Contex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ceptual Love Metaphors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1), 129-150. The paper tri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view that cognitive linguists and cognitive psychologists should think about metaphors and their relations to thought as cognitive webs that extend beyond individual minds and are spread out into the cultural world, and of the view of Kövecses(2000) similar to that of Gibbs(1997) by examining the conceptual love metaphors in cultural contexts. Korean popular songs as well as English popular songs conceptualize 'love' as 'nutrient', 'physical closeness', 'the fluid in a container', 'fire', 'the object in nature', 'magic', 'rapture' etc. in the same manner, but in broader cultural context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can be seen in the range and emphasis of love metaphors. English popular songs have 'light', 'rapture', 'beautiful experience', 'game', 'possession', while Korean ones 'creature', 'thing', 'season' as source domains of love concept respectively. English popular songs have the strong tendencies highlighting the positive aspects of love, while Korean ones highlighting the negative ones. The paper gave specific reasons for this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ontexts. Love metaphors based on everyday cultural life show us how emotions like love reflect the history of a certain culture. The argument of the paper focusing on the love metaphors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ontexts can naturally be linked with the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thought. As a consequence, the paper can be the part of the academic efforts revealing the correlations between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주제어(Key Words): conceptual metaphor, cultural context, emotional metaphor, bodily experience, metaphorical thought

* 본 논문이 보다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1. 서론

Lakoff(1986: 223)도 은유에 대한 자신의 인지적 접근법의 중요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듯이¹⁾ 개념적인 은유의 토대를 이상적인 원어민에게 의존하는 것은, 그것의 이론적인 토대가 개인 심리로부터 초개인적 토대 즉,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토대로 옮겨감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Lakoff(1986, 1987)와 Johnson(1987)은 그들의 인지 모형 속에 언어, 가치, 제도, 역사와 함께 문화적인 전통들을 포함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구성된 의미들은 Johnson의 분석에 있어서 내포된 의미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Lakoff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들은 체계적으로 발전되거나 잘 형성되지 못하였다.

Lakoff & Turner(1989: 51)도 기본적인 개념은 문화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일반적인 개념 장치의 일부분이고, 일반적인 개념 장치는 개개 언어 사용자 사이에서 발견되는 말(speech)의 규칙성에서 나오는 일련의 추상화로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본(pattern)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지 심리학자 Gibbs(1997)는, 관용어가 그것의 다양한 함의와 일치하는 담화 맥락 속에서는 더욱 더 적절하고 쉽게 이해된다는 실험적인 결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Kirmayer(1992)는 개념적인 은유를 위한 근원 영역을 형성하는 신체적인 경험은 그 자체가 복합적인 문화적 구축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많은 기초적인 신체화된 경험들이 문화적인 지식과 관습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보여주었다(Csordas 1994; Low 1994; Winker 1994; Jackson 1994; Schepher-Hughes & Lock 1987). Quinn(1991: 57)은 문화가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심오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지인류학의 최근의 많은 연구의 결론이라고 주장하였다. Emanatian(1995, 1997), Fernandez(1991), Holland & Quinn(1987), Kövecses(1986, 1988, 1990, 1991, 1998, 2000) 등 적잖은 언어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개념적 은유는 개인의 정신적 구조의 작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1) Lakoff(1986: 223)는 자신의 인지은유이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But do all competent speakers of a language have the same conventionalized metaphors? And how do we know, for any given individual, whether the love-as-journey is conventionalized for them? The analytic methods devised by Johnson and myself(Lakoff & Johnson: 1980) are not sufficient to answer such questions. All our methods permit is an analysis of conventional metaphors in the conceptual system underlying the speech of an idealized native speaker.

다른 문화적 모형의 작용을 반영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인지심리학자 Gibbs(1997, 152)는 은유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에 의하면 은유는 환경으로부터 생겨나는 정보와 구조의 지속적인 내재화이며, 동시에 내적인 표시가 높은 수준의 심리적인 기능을 생산하는 환경에서 외재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류학자, 심리학자, 심지어 인지언어학자들조차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인 연구는 ‘이문화적이고 이언어적인 관점의 부족’과 더불어 내향적인 조사(introspective inspection), 탈문맥화와 같은 방법론적인 약점이나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된 가요에서 보이는 사랑 은유의 이문화적인 특이성을 부각시키면서, Lakoff(1986, 1987)와 Johnson(1987)은 개념화와 범주화라는 인지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들이 발견한 성과물들은 개인적인 차원 대신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식의 구조를 다루는 것으로 재조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Lutz(1988)는 정서 개념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면, 사랑과 같은 정서 개념은 완전히 자의적인 사회문화적인 산물이 된다. 그의 견해는 분노와 같은 정서를 구성하는 은유가 생리적인 기능에 의하여 동기 부여받는 정도만큼이나 개념은 인간의 신체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 받는다는 Lakoff & Kövecses(1987)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치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인 그리고 인지심리학적인 연구는 신체적 경험과 은유적 사고를 형성하는 문화와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Gibbs(1997)의 주장과, ‘분노의 개념은 인간의 생리에 의해 단순히 동기 부여되거나 그것은 ‘순수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견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Kövecses(2000)의 주장의 타당성을 사랑 은유의 이문화적 특이성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입증할 것이다.

2. 사랑 은유의 이문화적 개념화

한국의 가요도 영미권의 가요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영양분, 육체적인 가까움, 용기 속의 액체, 불, 자연물, 마법, 환희 등으로 개념화한다.²⁾³⁾⁴⁾

2) 본고에서 예시한 영어와 한국어 사랑 관련 표현들은 주로 1970-1990 년대의 기성세대에 의해 불리던 노랫말들이다. 그러나 지금도 신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애송되는 가요의 사랑 관련 표현이라는 점에서, 영미권의 가요[649곡]와 한국의 가요[702곡]를 개념적 사랑 은유의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영미권 가요와 한국어 가요의 의 출처는 참고

- (1) **영양분**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One summer night)
육체적인 가까움 I'm as close as I can be. (My sweet heart)
용기 속의 액체 Should I speak of love let my feelings out?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불 A burning love of this old friend of mine (Stony)
자연물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e rose)
마법 With your hand resting in me, I feel a power.
 (You're my world)
환희 Only you and you alone can thrill me. (Only you)
- (2) **영양분** 사랑을 받지 못하여 나는 시들은 꽃잎 (예수)
육체적인 가까움 지나간 세월을 기다리어 우리는 만났다. (우리는)
용기 속의 액체 사랑 가득히 한 몸에 안고 (강남 멋쟁이)
불 아낌없이 태워버렸다. 널 위해 나를 태웠다. (너만을 사랑했다)
자연물 아 밀물 같은 사랑 (결혼기념일의 노래)
마법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리움이 더욱 하겠지만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환희 아아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영어와 한국어는 계통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언어이다. 영어는 인 구어(Indo-european language)이고, 한국어는 우랄-알타이어로 혹은 세상의 어떤 언어와도 눈에 띄는 체계적인 관련성이 없는 언어로 분류된다. 영어와 한국어처럼 서로 관련되지 않은 두 언어가 어떻게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비유적인 방법들을 상당한 정도로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에 불고 있는 영어 배우기 열풍 때문인가? 1930-40년대부터 불리고 있는 노래에서도, 심지어 15세기 중엽에 발생하여 5백여 년 이상 발전

문헌 참고.

3) 사랑의 정서를 담고 있는 은유적 표현을 비교하면서 본문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필자가 선정한 영어와 한국어 가요집에 있는 사랑 관련 표현을 모두 망라한 것임을 밝혀둔다. 예를 들면, 사랑을 '식물'로 개념화한 표현의 예를 영어 가요에서는 2개를 그리고 한국의 가요에서는 17개를 들었는데, 이는 (필자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영어 가요에서는 **사랑을 식물**로 보는 사랑 관련 표현이 2개였고, 한국의 가요에서는 17개였기 때문이다.

4)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규약으로써, 영어에서는 대문자를, 한국어에서는 진한 글씨를 사용한다.

되어 온 민족시가 형태의 하나인 ‘가사’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사랑에 관한 개념적인 은유와 그 언어적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랑의 영역을 개념화하는 방법이 두 언어에서 나아가 범언어적으로 거의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서 은유는 (i)전형적인 문화 모델의 내용에서 (ii)좀 더 넓은 문화적인 맥락의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주요 개념들에서 (iii)개념적 은유의 범위에서 (iv)개념적인 은유의 특별한 정교화에서 (v)은유에 대한 강조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Kövecses 2000: 165). 본고에서는 (i)-(v)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결합 은유로 인해 아래 예문 (3)이 사랑에 관한 표현들임을 자연스럽게 명백하게 이해하게 된다. **결합** 은유의 체험적인 토대는 사랑 경험과 ‘물질적·화학적 부분들의 결합’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다. 사랑이 두 부분의 결합임을 안다면 결합했던 두 부분의 해체는(예: Sally and John broke up.) 두 결합체 사이에서 사랑이 없어진 결과임을 알게 된다. **결합** 은유의 중심적인 역할과 자연스러움은 이 은유가 사랑과 연관된 가장 전형적인 행동 반응들 가운데 하나인 매우 강력한 체험적인 토대 ‘육체적인 가까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Kövecses 1986). 그러나 영어의 **결합** 은유에서는 ‘holding someone’s hand, be in one’s arms, hold someone in one’s arms, lay with someone, hold someone tight(3a-e)⁵⁾, 한국어에서는 ‘손을 잡는 것’과 ‘품에 안기는 것’이(3f-j) 사용되어 이 은유가 언어적으로 정교화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지만, **가까움**의 경우 두 언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영어에서는 heart, hand, stand(standing)가(4a-e) 사용되었지만, 한국어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4q-w) 표현된다.

사랑은 결합이다.

- (3a). I always want to be there holding your hand. (Let it be there)
- (3b). So I’ll keep changing partners till you’re in my arms.
(Changing partners)
- (3c). Hold me in your arms for just another day.
(The one that you love)

5) 예문의 밑줄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그어놓은 것이고, 설명 부분에 나오는 괄호 안의 번호는 예문을 가리킨다. (밑줄이 있는 예문들과 함께 나오는) 밑줄이 없는 예문들은 필자가 분석한 가요집에 나오는 사랑 관련 개념적 은유의 언어적 표현들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망라하여 예문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3d). The first ever I lay with you and felt your heart so close to mine.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 (3e). Come hold me tight. (It's now or never)
- (3f).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유리벽)
- (3g). 그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 볼 수만 있었다면 (귀로)
- (3h). 그대와 손잡던 날 내 가슴에 둥근달이 떴지. (나니미)
- (3i). 어느 때 어느 날짜 그대 품에 안기려나(남원의 예수)
- (3j). 내 품에 안기어 고이 잠든 그대여. (당신)

사랑은 육체적인 가까움이다.

- (4a). Woman, hold me close to your heart. (woman)
- (4b).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just be close at hand.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 (4c). Through the good times and the bad ya I'll be standin' there by you. (Heaven)
- (4d). Stand by me. (Stand by me)
- (4e). I promise I will stay right here beside you. (My sweet lady)
- (4f). I want to stay around you. (Let it be me)
- (4g).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 (4h). Please stay by me. (Diana)
- (4i). Tomorrow and today beside you all the way (If)
- (4j). We were so close. (Jane)
- (4k). When I need you I Just close my eyes and I'm with you. (When I need you)
- (4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Bridge over troubled water)
- (4m). Your eyes got me hopin' that I'll be holding you close tonight. (Ebony eyes)
- (4n). With your hand resting in mine, I feel a power.
(You're my world)
- (4o). I'm as close as I can be. (My sweet heart)
- (4p). I'll be the last one there beside you. (You're only lonely)

- (4q).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을 테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 (4r). 그대 곁에 가고파도 날을 수 없는 이 몸을 그대는 모르리라.
(가시나무 새)
- (4s). 나와 돌이서 지낸 날을 잊지 말아 줘요. (나성에 가면)
- (4t).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난 아직 모르잖아요)
- (4u). 오늘밤만 내게 있어줘요. (남 남)
- (4v). 그대와 나 또 이렇게 돌이고요. (비와 찻잔 사이)
- (4w). 지나간 세월을 기다리어 우리는 만났다. (우리는)

영미권의 가요와는 달리 한국의 가요에서 **사랑**을 식물로 개념화한 은유적 표현은 비교적 풍부하다⁶⁾. 한국인들은 사랑을 가버리는 것으로(5c-f), 사랑을 맺지 못하고 피우지 못하는 것으로(5g-j), 사랑을 상처를 주는 것으로(5k), 사랑을 눈물의 씨앗으로(5l) 인식한다. 동시에 한국인들은 사랑을 싹트는 것으로(5m-n), 사랑을 곱고 영롱하게 피어나는 것으로(5o-p), 사랑을 다시 피어나(5q) 밤거리를 수놓으며 지지 않는 것으로(5r-s) 인식하기도 한다. 사랑은 기쁨을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픔과 슬픔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예 (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가요에서는 사랑은 긍정적인 것인 만큼이나 부정적인 것이다.⁷⁾⁸⁾ 한편, 영미권의 가요에서는 사랑을 식물로는 거의 보지 않으며, 그 수는 적지만 ‘사랑은 꽃’이며(5a), ‘그것을 키우자’는 표현에서(5b)에서 사랑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려는 그들의 사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⁹⁾

6) 각주 5) 참조.

7) 아래 예는 한국의 가요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사랑은 계절이다**라는 은유이다. 계절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보편적인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은유도 사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가을 사랑)

8) 아래 예문도 **사랑을 식물로** 본 예이지만 사랑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i) 서라벌에 맺은 사랑 (무영탑 사랑)
- (ii) 외로운 내 가슴에 사랑을 심어놓고 (슬픔이여 안녕)
- (iii) 가슴에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깊은 줄은 몰랐었네.
(난 정말 몰랐었네)

9) 한국의 가요에서는 사랑을 식물로 보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비교적 다양하므로 충분히

사랑은 식물이다

- (5a). I'd say love it is a flower. (The rose)
- (5b). Plant your love and let it grow. (Let it grow)
- (5c). 낙엽처럼 맺지 못할 사랑은 날아갔네. (갈대)
- (5d). 사랑을 심어놓고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사랑은 나비인가 봐)
- (5e). 사랑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가고 (용두산 엘레지)
- (5f). 첫사랑 맺은 열매 잇기 전에 떠났네. (카추샤의 노래)
- (5g). 맺지 못할 사랑인줄 알면서도 (당신)
- (5h). 맺지 못할 사랑일랑 생각을 말자. (우수)
- (5i). 맺지 못할 사랑이기에 말없이 헤어졌고 (아마도 빗물이겠지)
- (5j). 피우지 못한 그 사랑의 꽃잎을 접어둔 채로 (추억의 테헤란로)
- (5k).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사랑의 미로)
- (5l).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 (5m). 어느 날 사랑이 싹트면서 꿈이 시작되던 날
(호반에서 만난 사람)
- (5n). 드높은 하늘 물들이면서 사랑은 싹텃네. (사랑은 영원히)
- (5o). 곱게 곱게 피어난 사랑을 담고 (서울이여 언제까지나)
- (5p).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열애)
- (5q).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꽃으로
(백만송이의 장미)
- (5r). 사랑이 꽃피는 강남의 밤거리 (강남 멋쟁이)
- (5s).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사랑이여)

한국의 가요에는 영미권의 가요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랑은 **생명체이다** 라는 은유와 **사랑은 물건이다**라는 은유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 은유들이 한국의 가요에서만 보이는 이유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미권의 가요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 ‘물건’, ‘용기’와 같은 근원 영역이 식물과 결합되어 있다.

- (i) 낙엽처럼 맺지 못할 사랑은 날아갔네. (갈대) **(새)**
- (ii) 곱게 곱게 피어난 사랑을 담고 (서울이여 언제까지나) **(물건)**
- (iii) 가슴에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깊은 줄은 몰랐었네.
(난 정말 몰랐었네) **(용기)**

문제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은유들은 거의 대부분 사랑의 부정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필자가 선정한 한국어 가요집에서 15개의 표현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밑줄이 없는 2개를 제외한 13개의 표현이 사랑의 부정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다.)

사랑은 생명체이다

그냥 스쳐지나갈 사랑이라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병들은 내 사랑은 (보슬비 오는 거리)

사랑이 울고 있다네. 이별을 앞에 두고서 (사랑이 저만치 가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 사랑이 떠나가네. (사랑이 저만치 가네)

지난 가을날 가버린 사랑 (허무한 마음)

사랑은 물건이다

그대를 떠나보내며 사랑을 잃어버린 나 (사랑을 잃어버린 나)

기타 줄에 실은 사랑 (올어라 기타줄)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알미운 사람)

사랑을 안은 채 동수는 간다. (한 많은 청춘)

사랑을 잃어버린 이내 가슴에 (선녀와 나뭇꾼)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돌아가는 삼각지)

짧은 사랑아 (립스틱 짙게 바르고)

호수처럼 깨져버린 슬픈 내 사랑 (나니미)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주고받았지 (꽃길)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잃어버린 우산)

한편, 영미권의 가요에는 한국의 가요에서는 보이지 않는 **빛, 환희, 미적 경험**이 사랑의 근원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영미인들이 한국인들보다는 사랑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더 우세하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랑은 빛이다

They warm and excite us 'cause we have the brightest love.
(Evergreen)

And the morning's born with lights of love. (If I needed you)
Through the clouds I see love sunshine.

(I want to know what love is)
You light up my life. (You light up my life)
When we met, how the bright sun shine. (Love is blue)

사랑은 환희이다

Only you and you alone can thrill me. (Only you)
The heavenly rapture of your embrace tells me no one can take your
place. (Young love)

사랑은 미적 경험이다

Do you remember those sweet memories? (Remember the time)
I've never thought I'd feel this way and as far as I'm concerned.
(That's what friends are for)

3. 사랑 은유의 범위와 중심성 그리고 문화적 맥락

Lakoff & Johnson(1980: 196-197)의 주장대로 자연 언어의 개념 구조는 본성에 있어서 은유적이고 개념 구조는 관습적 은유가 그러한 것처럼 물리적·문화적 경험에 근거한다. 따라서 사랑의 정서를 위해 특정 언어와 문화가 이용할 수 있는 개념적 은유의 범위와 중심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개념적 은유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자. 영미권의 가요에는 한국의 가요에서는 보이지 않는 근원 영역 **게임**과 **소유**가 발견된다.

사랑은 게임이다

Watching every motion in my foolish lover's game
(Take my breath away)
Your game of love was all rained out. (To be with you)
Jane you played with me. (Jane)
I thought I know the score.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미국이 야구나 축구, 농구 등 (운동) 게임의 천국임을 생각해 보면 위의

표현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인들의 일상 표현에는 ‘I will take a rain check on it.’, ‘The ball is on your court.’, ‘He hit below the belt.’ 등에서처럼 스포츠에서 넘어온 표현들이 많은 것도 영어 가요에서 **사랑은 게임이다**라는 은유적 개념의 언어적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러한 표현들은 특정 문화 저변의 사상적 혹은 체계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소유이다

Be mine tonight. (It’s now or never)
I’m your man. (I’m your man)
I told the world that you are mine. (Jane)
I’ll be yours through all the years. (Love me tender)

영미권 가요에서는 **사랑은 소유이다**라는 은유의 언어적 표현들을 비교적 쉽게 발견 할 수 있으나, 필자가 분석한 한국의 가요에서는 이 은유가 보이지 않았다. 영어는 소유의 개념이 대단히 발달한 언어이다. 한국어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이다’는 아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에서는 소유를 나타내는 have에 대응된다(김태현: 2006 참조).

She has beautiful eyes. = 그녀는 눈이 예쁘다.
It may have side effects. = 그것에는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She has three sisters. = 그녀는 동생이 3명이다.

영어에서 **사랑은 소유이다**라는 개념이 활성화 된 것은 영어가 소유 중심의 언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랑은 액체이다라는 은유는 영미권의 가요와 한국의 가요에서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그 개념화 양상에는 차이를 보인다. 영어에서는 **사랑은 액체이다**라는 은유는 **사랑은 용기이다**라는 은유와 **사랑은 용기 속의 액체이다**라는 두 하위 변형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에서 **사랑은 액체이다**라는 은유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사랑은 용기이다**, **사랑은 용기 속의 액체이다**, **사랑은 술이다**라는 세 가지 하위 변형을 가질 수도 있다.¹⁰⁾ 동

10) Yu(1995, 1998)는 중국어, 영어 두 언어 모두 동일한 중심적인 개념적인 은유 분노는

일한 개념적 은유가 언어의 층위가 아닌 개념의 층위에서도 이문화적으로 상이한 하위 변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개념적 은유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정교화 양상도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사랑은 액체이다 (사랑은 용기이다+사랑은 용기 속의 액체이다)

사랑은 용기이다 <제 1 하위 변형>

I might have been in love.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t's so easy to fall in love. (It's so easy)

Once there was a love filled with such a devotion.

(Once there was love)

Young love, first love, filled with true devotion. (Young love)

I've been in love so many times.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사랑은 용기속의 액체이다 <제 2 하위 변형>

Like the sea, there's a love too deep to show. (C'est la vie)

Should I speak of love let my fillings out?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사랑은 액체이다 (사랑은 액체이다+사랑은 용기이다

+사랑은 용기 속의 액체이다+ 사랑은 술이다)--한국어의 경우

사랑은 액체이다 <액체 그 자체로 존재>

얼굴엔 주름지어도 내 사랑 식어버려도 (추억 만들기)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잃어버린 첫 사랑도 흐르네. (남행 열차)

사랑을 잃어 흘러간 사랑의 그림자 (저 꽃 속에 찬란한 빛)

열 이다를 공유하고 있으나 **분노는 열이다**라는 은유가 액체에 적용되는 영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어의 경우는 가스에 적용되고 그 결과 중국어에서 도출되는 은유는 **분노는 용기 속의 뜨거운 가스이다**(ANGER IS THE HOT GAS IN A CONTAINER)라고 주장하였다. King(1989)과 Yu(1995, 1998)는 중국어에서 분노가 가스로 사상되는 것은 분노에 대한 개념이 신체를 통하여 흘러 다니는 '기(qi)'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은 용기이다 <제 1 하위 변형>

사랑에 푹 빠졌나봐 (사랑에 푹 빠졌나봐)

사랑은 용기속의 액체이다 <제 2 하위 변형>

비바람 몹시 불어와도 바다처럼 깊은 사랑 (결혼기념일의 노래)

사랑 가득히 한 몸에 안고서 (강남 멋쟁이)

사랑은 술이다. <제 3 하위 변형>

눈물을 삼키려 술을 마신다. 옛사랑을 마신다. (59년 왕십리)

사랑에 취해 행복을 꿈꾸던 거리 (남포동 블루스)

사랑에 취해있나 (무너진 사랑 탑)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쌈바의 여인)

개념적 은유의 중심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영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육체적인 떨어짐이다**라는 은유가, **사랑은 육체적인 가까움이다**라는 은유만큼이나 한국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가요에서는 **사랑은 육체적인 떨어짐이다**라는 은유가 중심적이라는 점을 예증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에서 사랑의 개념은 영어의 경우보다도 이별의 개념과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자.

(6a).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그때 그 사람)

(6b). 내가 떠나던 그 날 눈물대신 웃음을 보였네. (내일이 찾아와도)

(6c). 보내고 밤마다 눈물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거운 안녕)

(6d). 이 세상에 태어나 당신을 사랑하고 후회없이 돌아가는 이 몸은 낙엽이라. (나의 노래)

(6e).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6f).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나야 할 당신이기에 (눈물의 블루스)

(6g). 서로 만나 헤어질 이별이건만 (님)

위의 예문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가요에서 사랑은 ‘슬프이고 이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많이 담겨져 있다. 물론 영미인들도 사랑을 눈물, 이별, 상처, 아픔을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별을 불가항

력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예: Only you can take my heart Only you can tear it apart [Diana]). 그러나 적어도 영어 가요에 나타난 그들의 사랑에 관한 인식은 한국인의 그것보다도 긍정적이다. 그들은 한국인들보다도 사랑은 기쁨을 주는 것, 활력을 주는 것,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다. 아래의 예문들 (7a-c)는 영미인들의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한 번 더 예증하는 것들이다.

- (7a). The heavenly rapture of your embrace tells me no one can take your place. (Young love)
- (7b). With your hand resting in mine, I feel a power.
(You're my world)
- (7c).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 ever. (Reality)

또한 영미인들은 이별을 대하는 방식도 한국인들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들은 (6a-c)에서처럼 말없이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는 남자과 사랑하는 사람을 웃으며 순순히 보내주고 밤마다 우는 사나이를 결코 남자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영미인들은 그들을 사랑을 쟁취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적어도 영미인들의 가요에 나타난 그들의 사랑 방식은 한국인들의 사랑 방식처럼 수동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아래의 예문 (8)에서처럼 그들은 사랑에 적극성, 능동성, 진취성을 부여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 (8a). love I can't tell you how I feel
Always somewhere Miss you where I laughing.
I'll be back to you again.
The only stay up for away. But every city sees me in the end.
(Always somewhere)
- (8b). Come let me love you
let me give my life to you.
Let me drown in your laughter

let me die in your arms
let me lay down beside you
let me always be with you.
Come let me love you
come let me again.
Come love me again. (Annie's song)

(8c). I love you more and more each day as time goes by.
(Casablanca)

위의 예문 (6-8)에서처럼, 한국인들과 영미인들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개념화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2장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사랑은 ‘이별의 슬픔을 주는 것’, ‘무참히 꺾여 피기도 전에 지고 마는 꽃’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어로 된 노래에서 사랑의 개념을 ‘육체적인 떨어짐’을 동반하는 것으로(10) 보도록 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사랑은 ‘기쁨을 주는 것’, ‘활력을 주는 것’,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영미인들의 긍정적 인식은 사랑은 ‘육체적인 가까움’이라는 은유를(9) 그들의 개념화에서 우세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¹¹⁾

사랑은 육체적인 가까움이다

- (9a). Thrills I get when you hold me close. (Diana)
(9b). I'll trade my base when I'm with you. (Feel so good)
(9c). The first time ever I lay with you and felt your heart so close to mine.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9d). We are so close. (Jane)
(9e). Tomorrow and today beside you all the way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사랑은 육체적인 떨어짐이다

- (10a).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난 믿을 수 없어. (사랑하기에)
(10b). 세월이 지난 후에 알았네. 내가 순이 사랑한 것 (우리 순이)

11) 물론 보다 광범위한 사랑 관련 자료를 통해서 영어에서 사랑의 개념을 ‘육체적인 떨어짐’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는 표현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문화적 특이성 속에 존재하는 보편성 즉, 일반성 혹은 빈도의 문제이다.

- (10c). 네가 멀리 떠난 후 사랑인 줄 나는 알았네. (밤에 떠난 여인)
 (10d). 그대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대 곁에 머물 수는 없어요.
 (혼자이고 싶어요)
 (10e). 어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
 이었어. (해후)
 (10f). 흐느끼며 매달리던 그 사람 버려 놓고 이제 와서 후회할 줄 진정
 몰랐소. (후회)
 (10g). 슬픔에 찬 웃음으로 나를 보낸 님아 (하늘이여)
 (10h).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보내드린 첫 사랑 (카츄사의 노래)
 (10i). 가슴 속 울려 주는 눈물 젖은 편지...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편지)
 (10j). 나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지...떠나야 할 까답일
 랑 묻지 말아요. (추억으로 가는 당신)
 (10k). 사랑했기에 멀리 떠난 님을 (제비)

한국의 가요에서는 **사랑은 육체적인 멀어짐이다**라는 은유가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한국인의 사랑은 이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고, 이별에 관한 것처럼 보이는 위의 표현 (10)을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영어의 경우도, 비록 한국어의 경우만큼은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이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랑의 개념은 **사랑은 육체적인 멀어짐이다**라는 은유를 적용시킴으로써 한국어의 경우와 동등하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¹²⁾

한국어 가요에서 (영어 가요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육체적인 멀어짐’으로 표현한 은유적 표현이 활성화된 근거는 한국과 같은 보수적이고 유교주의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문화권에서는 사랑하지만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적인 멀어짐’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인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12) 대중가요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문자적으로는 이별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은유적인 사랑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본고의 주장은 인지언론자들이 ‘개념적인 은유는 맥락을 초월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수사학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비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Gibbs(1984, 1989)와 Glucksberg(1986)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맥락적인 세부 사항들을 첨가시킴으로써 인지언론자들의 철학적이고 보편적인 의도들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Glucksberg & McGlone(1999)는 담화 수준의 이론이 Lakoff의 개념적인 은유 이론과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거나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의 예문 (10a-k)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개념 속에 **사랑은 육체적 떨어짐이다**라는 은유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개념적 은유의 신체적 근거는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을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거나 아니면 책, 영화,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은유의 기저에는 한국인 화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믿음, 보수적이고 유교주의적인 전통적 사랑관, 그리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한’이 용해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보다 더 근원적인 신체적 근거(체험적 근거,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가요에는 사랑을 이별, 눈물, 아픔으로 인식한 표현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다. 그것은 영미권의 가치관에서는 불륜이 될 수 없는 많은 경우들이 한국과 같은 보수적이었던 사회에서는 불륜이 될 수 있거나, 가문의 결합을 중시하는 유교주의적인 결혼관을 가진 집안의 반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인들은 육체적으로 떨어뜨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붙잡아두려고 하는 영미인들과는 달리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그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도 생각된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가요에 나타난 개념적 사랑 은유를 중심으로 ‘정서의 개념화와 문화적 변이’에 관한 연구에 정합성 있는 틀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다.

은유에 대한 인지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인지과학자들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명시적으로 개념적인 은유적 사상이 언어 사용자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Gibbs(1997)의 주장처럼 인간의 개념체계에 대한 이론들은 ‘신체가 세계와 만날 때 일어나는 인지는’ 필연적으로 문화에 토대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문화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인지언어학자들과 인지심리학자들은 은유적 사고의 형성에 관여하는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랑 은유를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인지언어학자들과 인지심리학자들은 은유와 사고의 관계는 개인의 마음을 넘어서

문화적인 세계로 확산되는 인지망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Gibbs(1997)나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Kövecses(2000)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정서도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개념적 은유의 범위와 중심성’ 그리고 ‘언어적 정교화 양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미권의 가요는 사랑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우세한 반면 한국의 가요는 사랑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하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한 점은 본고의 핵심이다. 환언하자면, 문화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 제도, 역사, 전통’이 영어와 한국어로 된 가요의 사랑 은유를 형성하고 그것에 정합성 있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영미인과 한국인의 일상적인 문화적 삶 속에 토대한 사랑 은유는 우리의 행위와 사고를 구조화하는 체계적인 은유적 개념으로서 어떻게 사랑과 같은 정서가 문화적인 역사를 반영하는 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가요에서 (영어의 가요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은 육체적인 멀어짐이다**라는 은유가 중심적인 것은 한국과 같은 보수적이고 유교주의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문화권에서는 사랑하지만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적인 멀어짐’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인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은유적 개념과 문화적인 전통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강력하게 예증하는 것이다.

사랑 은유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조망한 본고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언어, 사고 그리고 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학술적인 노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인류학자들은 문화가 인간의 이해(사고)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심오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인지언어학자들과 체험주의철학자들은 언어 사용을 이해함으로써 언어 사용자의 사고유형들을 통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논쟁에 대한 해답은, 은유는 실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실재를 반영한다는 점을 믿음으로써 진리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Holland의 주장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Kövecses: 2000, 17 참조).

참고문헌

- 김태현. (2006). 한국어의 영어 전환 공식 수립을 제안하며. *인문과학연구* 7, 117-148.
- 도서 출판 신나라 (1993). 『홀리간 팝송 대백과』 서울: 도서출판 편집부 편.
- 삼호 출판사 (1997). 『홀리간 노래 대전집』 서울: 삼호출판사 편집부 편.
- 삼호 출판사 (1998). 『홀리간 팝송: oldies but goodies』 서울: 삼호 출판사 편집부 편.
- Csordas, T. (1994). *Embodiment and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anatian, M. (1995). Metaphor and expression of emotion: The value of cross-cultural perspectives.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0, 163-182.
- Emanatian, M. (1997). Congruence by degree on the relation between metaphor and cultural models. In Gibbs, R. W. & G. Steen. (Eds.).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5-218.
- Fernandez, J. W. (1991). Introduction: Confluents of inquiry. In J. W. Fernandez. (Ed.). *Beyond metaphor: The theory of tropes in anthrop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13.
- Gibbs R. W. M. (1997). Congruence by degree on the relation between metaphor and cultural models. In Gibbs, R. W. & G. Steen. (Eds.).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45-166.
- Gibbs, R. W. (1984). Literal meaning and psychological theory. *Cognitive Science* 8, 275-304.
- Gibbs, R. W. (1989). Understanding and literal meaning. *Cognitive Science* 8, 243-251.
- Gibbs, R. W. & G. J. Steen. (Eds). (1997).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lucksberg, S. & M. S. McGlone. (1999). When love is not a journey: What metaphors mean. *Journal of Pragmatics* 31, 1541-1558.
- Glucksberg, S. (1986). How people use context to resolve ambiguity:

- Implications for an interactive model of language understanding. In Krucz, I., G. W. Shugar, & J. H. Danks. (Eds.). *Knowledge and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303-325.
- Holland, D. & N. Quinn (Eds.). (1987). *Cultural models of language and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son, J. (1994). Chronic pain and the tension between the body as subject and object. In T. Csordas. (Ed.). *Embodiment and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28.
-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ng, B. (1989). *The conceptual structure of emotional experience in Chines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Kirmayer, Z. (1992). The body's insistence of meaning: Metaphor as presentation and representation in illness experience.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6. 323-346.
- Kövecses, Z. (1986). *Metaphors of anger, pride, and love: A lexic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concept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övecses, Z. (1988). *The language of love: The semantics of passion in conversational English*. Lewisburg, PA: Bucknell University Press.
- Kövecses, Z. (1990). *Emotion concepts*. New York: Springer-Verlag.
- Kövecses, Z. (1991). Happiness: A definitional effort.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6. 29-46.
- Kövecses, Z. (1997). Are there any emotion-specific metaphors?. In Athanasiadou, A. & E. Tabakowska. (Eds.). *Speaking of emotions' conceptualization and express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127-151.
- Kövecses, Z. (2000).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M.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Z. Kövecses. (1987). The cognitive model of anger inherent in American English, In D. Holland & N. Quinn. (Eds.).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 195-221.
- Lakoff, G. (1986). A figure of thought.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 215-225.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w, S. (1994). Embodied metaphors: Nerves as lived experience, In D. Csordas. (Ed.). *Embodiment and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9-162.
- Lutz, C. A. (1988). *Universal emotions: Every sentiments on a Micronesian atoll and their challenge to Western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suki, K. (1995). Metaphors of anger in Japanese. In Taylor, J. & R. E. MacLaury. (Eds.). *Language and the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Berlin: Mouton de Gruyter, 137-151.
- Ortony, A. (1988). Are emotion metaphors conceptual or lexical? *Cognition and Emotion* 2. 95-103.
- Quinn, N. (1991). The cultural basis of metaphor. In J. W. Fernandez. (Ed.). *Beyond metaphor: The theory of tropes in anthrop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56-93.
- Scheper-Hughes, N. & M. Lock. (1987). The mindful body: A prolegomenon to future work in medical anthropology, *Medical Quarterly* 1. 6-41.
- Winker, C. (1994). Rape trauma: Contexts of meaning. in T. Csordas. (Ed.). *Embodiment and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8-268.
- Yu, N. (1995). Metaphorical expressions of anger and happiness in English and Chinese.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0. 59-92.
- Yu, N. (1998).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A perspective from Chine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김태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53-856-1985, 018-501-7090

이메일: kth352@naver.com

Received: 28 December, 2007

Revised: 30 January, 2008

Accepted: 29 February, 2008